지 상 법 석

자신에 대한 자비행”

“나와 남에게 한결같이 자비로우면 누가 그 사람을 중생이라 하겠습니까”

“세상은 성불도량…일상에서 부처님 만나세요”

오계와 오복은 상통…흐트러짐 없으면 福저절로

가르쳐 깨우치게 한다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삼십이응신으로 나투어 중생을 제도 하는 것은 중생을 가엾고 어여쁘게 여기는 보살심이 있기 때문이지만 중생이 그에 합당한 모습을 염원하지 않고 죄악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 맞춰 철퇴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관음보살님의 자비입니다. 아무나 무조건 봐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자비라면 이 세상에 무슨 질서가 있고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자비가 조건부라는 것이 아니고 그 쓰임이 불법에 거스름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해서는 안될 일을 해 놓고 자비를 말하며 용서 받으려 한다면 금강역사의 철퇴밖에 드릴 것이 없잖겠습니까. 더 혼나기 전에 어서 나가시지요.”

그들은 아무소리 못하고 절을 나갔는데 뒤에 들으니 저아래 마을에서 “그 영감이 누구냐”고 물더랍니다. 그리고 “주지스님이다”란 대답을 듣고 다음에 만나서는 “스님 너무하셨어요. 진작 주지스님이라고 말씀하셨으면…”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주지 말은 듣고 집지킴이 노인네 말은 안듣는 그 마음은 이미 진리와 거리가 멀구먼”하고 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자비를 잘못 이해하면 이런 웃지 못할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알면 남에게도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이 곧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자들이 지킬 계가 다섯가지 있음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섯가지는 동양인이 희구하는 오복(五福)과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과정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계의 처음은 불살생이고 오복의 처음은 수(壽)입니다. 오래 살길 바라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심입니다. 내가 오래살길 바란다면 다른 생명도 오래 잘 살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연법이 그걸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살생계를 지키라는 겁니다.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하면서 나는 오래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생을 삼가해서 나도 오래 살고 축생미물도 수명을 다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오계의 두번째는 불투도이고 오복의 두번째는 부(富)입니다. 도둑질해서 부자 됐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둑질을 해서 한순간은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 업장으로 그는 파멸하고 맙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것을 탐내는 마음도 갖지 말고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일지라도 남의 것은 남의 것으로 존중해 주고 나의 것은 나의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나는 내 노력만큼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노력한 것은 적고 가지려는 욕심은 크다면 세상은 혼란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계의 세번째는 불사음이고 오복의 세번째는 귀(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한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귀하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흐트러지지 않는 격조가 있고 함부로 여기지 못할 품위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귀하지 않은 것은 천한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의 생존가치를 경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귀한 존재로 세상을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귀한 존재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불사음의 계를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삿된 생각과 행동은 이웃과의 화합을 깨뜨리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인간사회는 그 사회마다의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특히 남녀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 집단마다 독특한 전통과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유별의 정신적 전통은 꾸준히 지켜져 왔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전래가 요즘은 크게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개방화되고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도 지켜질 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전통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평등이 아닙니다. 개인개인이 귀해질때 사회도 귀해지고 법계가 귀해집니다.

다음의 계율은 불망어이고 오복의 네번째는 덕(德)입니다. 덕망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줄도 압니다. 덕을 채우는 행위 가운데 말을 잘하고 잘 지키는 것이 매우 큰 비중을 갖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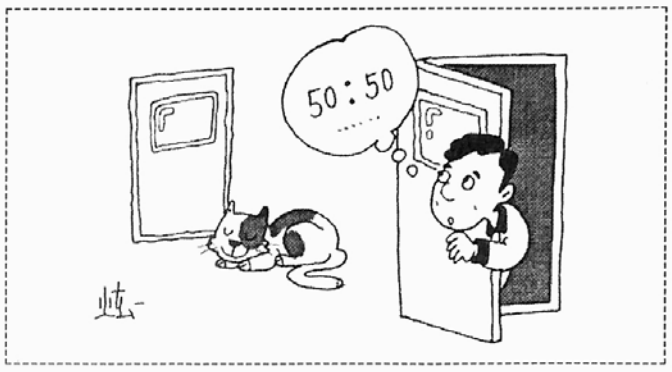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없듯이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잘 살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일 뿐이므로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거짓과 진실은 언제나 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가려진 진실이 후일 언젠가 밝혀지듯 지금은 성공한 거짓말일지라도 반드시 그 허상은 드러나는 겁니다. 진실은 하늘이고 거짓은 구름이라고 하면 어떨런지요. 불망어의 계를 잘 지키면 스스로 덕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덕성스런 행동을 해도 덕을 갖추지 못합니다. 말을 신중히 하고 말을 아낄 줄 아는 지혜는 그 사람의 덕이 될 것입니다.

오계의 마지막은 불음주이고 오복의 마지막은 명, 고종명(考終命)이라 합니다. 불음주는 재가불자들에게 매우 곤혹스런 계율이라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안마시고 살 수야 있겠습니까. 술을 마시되 약이 되도록 마셔야지 독이 되게 마셔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는 차원을 넘어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 지경에까지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가급적이면 마시지 말것이며 마셔야 할 때는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마셔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종명이란 목숨을 다하는 순간에 후회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불음주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관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비명에 목숨을 잃는 사람을 말하지 않더라도 술이 화근이 되어 가정을 불화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반목케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헛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술 마시는 일을 스스로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계율이란 지키기 힘든 것입니다. 쉽다면 굳이 계율로 삼아 지키라고 강조 할 이유도 없겠지요. 지키기 어려워도 지켜야 하고 그래야 참다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키려고 노력하는 데서 이미 삶의 지혜는 솟아납니다. 실천할 수 있을때 실천 함으로 이미 자비로운 불자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와 지계를 둘로 볼 것도 아닙니다. 다섯가지 계를 지키는 마음도 자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을 앞에서 했듯이 스스로 계를 지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비행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안이 법당이고 세상이 도량입니다. 자비심을 갖추고 자비행을 실천하며 이 도량을 청정히 가꾸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도량이야 말로 성불의 도량이니까요. 억지로 계율에 얽매여서도 안되고 솟아 오르는 화를 억지로 참아 병을 키워서도 안됩니다. 발보살심하는 그 순간에 모든 일에 자비로워지는 지혜를 얻을 것이니 여여(如如)하게 마음속의 자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자비는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 그 쓰임이 불법에 거스름이 없어야 합니다
> 해서는 안될일을 하고 자비구하면
> 금강역사의 철퇴로 다스려야죠”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80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⑰

불생불멸의 실상

‘있다-없다’ ‘살았다-죽었다’ 관찰자 시각
깃발이 펄럭이는 원인은 ‘마음의 움직임’

상자속에 고양이를 넣어두고 이 고양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따지거나 상자를 열어서 관찰하면 반드시 죽은 고양이를 보거나 산 고양이를 보게 될 뿐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고양이를 볼 수는 없다. 이 고양이에 관한 문제는 반야심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계속해서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삶과 죽음은 거시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인 현상이므로 직접 고양이를 갖고 실험하면 언제나 삶과 죽음의 둘 중 하나만 나타난다.

그러나 미시적 세계에 들어가서 실험하면 논리적으로 삶과 죽음이 공존해야만 하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난다. 입자-파동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실험이 바로 논리적으로는 삶과 죽음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것과 구별할 수 없는데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다.

앞문과 뒷문, 꼭 두개의 문을 가진 방(房)이 있고 이방에 사람이 들어간다면 사람은 앞문으로 들어가거나 뒷문으로 들어가거나 둘중 하나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입자(粒子)를 쏘아 방에 들어가게 하더라도 입자는 앞문으로 들어가거나 뒷문으로 들어가거나 둘중의 하나일 수 밖에 없다. 사람이건 입자이건 하나라면 하나가 동시에 두개의 문을 통과할 수는 없기때문이다. 실제로 입자를 쏘아 실험을 해보면 입자는 반드시 앞문이거나 뒷문이거나 둘 중 하나만 통과하지 두개의 문을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통과한다는 법은 없다. 입자하나가 하나의 문만 통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고양이가 삶과 죽음 중 어느 하나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꼭 같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제 관심을 돌려 입자가 어느쪽 문을 통과 하는지에 관해서는 생각하거나 관찰하지 말고 방안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관찰해보기로 하자.

방안에 들어온 입자의 경우 앞문이나 뒷문 어느 한쪽으로 들어온 입자의 행동은 두개의 문을 통과해 들어온 입자의 행동과는 확연히 다르다. 아니 입자라면 두개의 문으로 들어올 수 없기에 두개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파동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입자와 파동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초기의 물리학자들은 생각하였다. 그런데 관찰 결과는 입자라고 생각하든 파동이라고 생각하든 사람이 관찰하면 두개의 문중 어느 한쪽으로만 들어오고 어느쪽 문으로 오는지 관찰하지 않으면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두개의 문으로 들어온 것처럼 행동한다.

빛을 쪼인 경우에 어느 쪽 문으로 들어왔는지 관찰하지 않으면 방안에 들어온 빛은 밝고 어두운 무늬가 교대로 반복하는 띠를 만드는데 이 띠는 하나의 빛이 두개의 문으로 동시에 들어왔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무늬이다. 빛대신 다른 입자를 써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입자가 앞문으로도 들어오고 뒷문으로도 들어왔다고 해야 설명되는 무늬를 만들다. 둘로 나뉘어질 수 없는 입자가 동시에 두개의 문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입자가 어느쪽 문으로 들어오는지 관찰해보면 입자는 반드시 한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동시에 두개의 문을 지난다는 법은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문을 통해 들어온 것이 확인된 빛이나 입자는 결코 밝음과 어두움이 교차되는 띠를 만들지 않는다.

어느 쪽으로 오는지 관찰하지 않으면 띠를 만들고 어느쪽으로 오는지 관찰하면 띠를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양이에 적용시켜 보면 고양이가 든 상자를 열어보면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법이 없고 열어보지 않으면 삶과 죽음이 반반씩 섞인 고양이가 상자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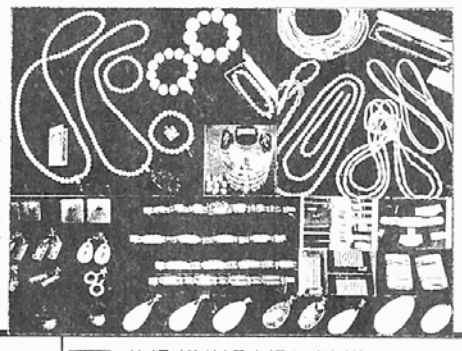
고양이가 죽었던 살았던 그것은 모두 사람이 창조해서 본 것이다. 그래서 육조 혜능스님은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것은 바람도 깃발도 움직이는 원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실상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인데 사람이 갖가지를 지어내는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선종어록한문의 해석법을 새롭게 배운다!
무문관으로 배우는
선어록 읽는 방법
『무문관』에 대한 정밀한 분석!
선종어록 해석을 위한 한문법의 체계적 정리!
'96 불교서적 종합목록이 나왔습니다. 가까운 불교서점이나 운주사로 연락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종은 당·송시대에 그 황금기를 맞이한다. 따라서 선어록 대부분이 그 시대의 언어로 쓰여졌으며, 그것도 선종 특유의 정신이 배어있는 직설적 어법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곧 일반적 언어 즉 구어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선어록을 해석함에 있어 문어체에 의지한 현대적 해석은 그 타당성을 잃는다. 철저히 당·송시대의 문화와 관습, 생활 등을 토대로한 구어적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필요에 부응한다.
秋月龍珉·秋月眞人 著/慧源 譯/신국판 양장/값 12,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우학스님 수필집-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이 시대 베스트셀러
-나오는 내용-
동성연애자의고민
선방·강원·토굴이야기
귀신의 장난
가정우환 소멸법
영가천도
정력…비법
이성을 사로 잡는법
잉꼬부부
출가의 험한 길
정통불교 수행
산중의 스트립쇼
죽음이후의 세계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큰 스님의 경책
-좋은인연 책들-
1 새로운 불교 공부 (불교 기초교리 강의서)
2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어린이 및 초심자 교리 문답서)
3 불자수행지침서 (신도 신행 의식집)
4 불교한자공부·사경및 해설 (금강경·천수경·반야심경·법성게·화엄경약찬게·예불문·아미타경)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가까운 서점에서 찾으세요
도서출판 좋은인연(053)475-3706-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주·야간 9월 개강) (053)474-8228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시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서울신문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랭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吳昊空 合家

8월 22일, 29일(木)
일반인을 위한 한방 건강 무료 강좌
“불교와 한의학”
그 종교 醫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적선동주의(Spiritual Sensationalism)를 표방한 명상의학의 한마당!
佛敎의 觀心一法(마음을 관하는 한가지 법)!
한의학의 審情浮沈(감정의 뜨고 가라앉음을 살핌)!
항상됨 없음이 불변진리이듯 절대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마음의 탄력성을 역설하는 금오선생의 조용한 의식혁명의 외침속에서 자기자신의 영적 치유능력을 찾아 내면세계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강의를 들으면서 병을 말끔히…….
·대 상 : 불교와 한의학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강 사 : 금오(金烏)
·장 소 : 법련사 2층 불일문화원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하차, 삼청동 방면 경복궁 정문 건너편, TEL : 02-733-5322, 5377)
·일 시 : 1996년 8월 22일, 29일 목요일 오후 7:00~8:30
·수강료 및 교재 : 무료
·문 의 처 : 서울 종로구 세종로 202-1 세광빌딩 9층 도서출판 神農百草 한의원 Tel. (02)736-4644~5 Fax. (02)730-7638
SARI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연합의료봉사단
/솜/岩/침/법/東/醫/사/상/연/구/회